

## 이 주의 투자 포인트 (3월 9일 주)

중동 분쟁 심화로 유가 급등과 글로벌 리스크 확산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증시가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으며 한국 증시에서는 서킷브레이커와 사이드카가 반복적으로 발동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대이란 군사작전을 4-6주가량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최소 6개월의 고강도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단기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는 가시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에너지/안전자산으로 하방 방어하고 현금비중을 높이며 낙폭 과대 우량 성장주에 대한 분할 접근도 공격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단기적으로는 중요해 보입니다.

### 1. 중동 분쟁 심화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보복 가능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부각되며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아직 공급 차질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에너지 및 운송 리스크 자체가 시장 우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및 유럽 증시가 미국보다 더 큰 충격을 받고 있는데 유가 상승 → 인플레이션 압력 재자극 → 연준 금리 인하 기대 후퇴 가능성이라는 연결고리가 형성되며, 고밸류 성장주에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고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변동성이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인플레이션 재가속 우려와 금리 인하 기대 약화되는 상황은 밸류에이션 조정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에너지/원자재/금(Gold) 등 인플레이션 헤지 자산 비중 유지하고 유가 상승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1) 구조적 대세 성장 산업 (AI), 2) 글로벌 1위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 (한국 반도체)에서 과도하게 낙폭이 나타나는 우량 성장주의 분할 접근도 중기 관점에서 유효합니다. 다만 공격적인 저가 매수보다는 당장은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한 구간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 2. 미국 2월 CPI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3월 12일 목요일 21:30 발표되는 2월 CPI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가능할 핵심 지표입니다.
- 만약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예상치:전년 동기 대비 2.5% 상승) 금리 인하 기대 후퇴되고 기술주 중심 추가 조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도 최근 유가 급등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해석으로 여전히 우려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매파적 성향을 보여온 연준 이사 미셸 보우먼의 연설이 한국 시간 3월 13일 중으로 예정되어 있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3. 오라클 실적발표

어떤 뉴스이고 투자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한국시간 3월 11일 수요일 아침 실적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분기 실적 발표시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고 EPS도 일회성 요인으로 성장하는 등 수익성 우려가 존재하는 중 막대한 자본지출과 현금 흐름 악화로 인해 실적 발표 직후 10%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최근에는 오픈 AI와의 협력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와 관련해서 텍사스 확장 계획이 취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자금 조달 협상이 지연되고 오픈 AI의 수요예측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AI 인프라 투자 속도 조절 신호로 해석되며 관련주가 급락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 다만, 취소된 용량만큼 메타가 참여할 가능성도 나오면서 AI 산업 전체의 수요 둔화보다는 투자 주체 재편 가능성이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습니다.
-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된 시점에서 실적 기대치 하회, 자본지출 확대, 현금 흐름 추가 악화 등은 주가 하방 압력 요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투자심리 반전을 위해서는 실적 서프라이즈에 더해 수주 잔고의 급성장, 데이터센터 완공에 차질 없는 일정 혹은 추가 수요 가능성 등 수요의 강력한 시그널이 언급되어야 할 전망입니다.

## Compliance Note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지난 1년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 당사는 발간일 기준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자 등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